

양행계 방송인을 위한

<4>

TV코미디는 옛날보다 나아졌다는 전반적 평가속에서도 「치고 받고 때리는」비속한 행위, 흥행액 선영화를 만들케한 폭력 장면, 저속한 표현으로 여전히 많음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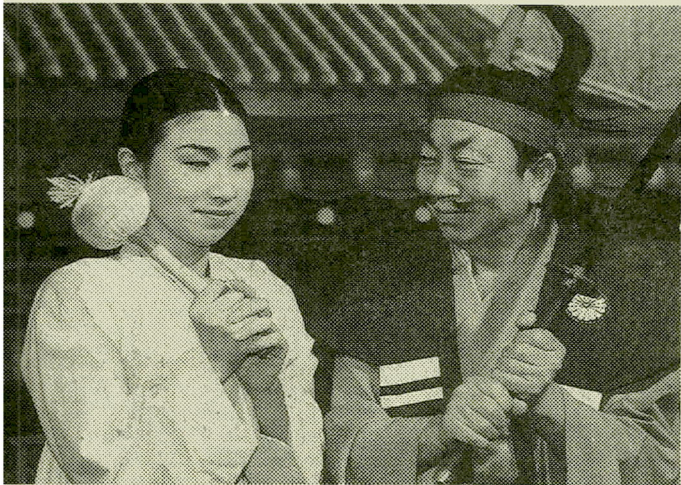
현충일이었던 지난달 6일 MBC 「영아일 일요일 밤에」에서는 영화 「장군의 아들」중 납치된 여자를 찾는 장면을 코믹하게 패러디하는 과정에서 칼을 휘

코미디 일반오락

두르고 치고 받는 일대할극이 벌어졌고 신혼부부 이아기를 얻은 꿈에서는 신혼밤 이불상에서 외간남자가 나오는 거북한 장면이 연출됐다.

이보다 하루앞서 MBC 「아름다운날」의 「빨래방에서 생긴일」코너에서는 세탁기속에 여자속옷과 남자속옷을 넣고 가동시키자 아이 돌돌소리가 들리

「비속한 몸짓」에 쏘웃음



활극-性희롱 눈에 띄게 늘어

주부프로 대부분 「과소비」 부추겨

로 엮어지는 점이 특징.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웃음을 선사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폭력 장면이 두드러지고 있다.

출연자 입맛춤 요구

고 그속에서 유아복이나 왔다. 이들 프로는 방송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MBC 「특종 TV 연애가 지난달 26일 방영한 「연애 베스트」코너에서는 갓난아기와 3인조 그룹의 미술품을 둘러싼 총격전과 절투장면이, 「연애」신부 내사장을 앞세우고 「연애」에서는 중국영화

구」없는 대화나 진행도 시청자들을 당혹하게 하는 대목.

이런 장면들이 빈번하다. 「과짜 인생」을 소재로 한 프로는 청소년들의 모방심을 부추긴다는 점에 서 시청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그러나 KBS 2TV의 「별난 세상」에서는 방청객의 귀고리나 물건을 안정제의 못까지 잘라내는 인간

연애오락프로는 최근 한 프로그래머가 여러 장르가 공존하는 버라이어티쇼 형태

「비자철」중에서 잔인하게 수 건행주의 입안으로 손

출연자들에게 포옹과 입맞춤을 요구, 가족 시청자들을 어린친구들하게 했다. 이 코너는 한술 더떠 「잠자리 들기전에 뭘 하나」 「넌 편이란 잠자리에 들때 마지막으로 하는게 뭐냐」고 묻는 등 낮토거운 질문으로 이어졌다.

이 프로는 방송위원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과짜 프로」가 주목을 받자 토코쇼 시간에 과짜 코너가 마련됐던 사실도 시청률들을 둘러싼 프로로 모방의 웃지 못 할 현주소. 공개 오락프로 의 경우 중고생들의 과성으로 인해 방송위의 제재를 받지 않은 프로가 거의 없는 실정. 이들 프로는 스텝이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연예 회사를 통해 중고생들을 「대량 조달」하고 이들에게 과성을 지르도록 적극 요청, 「화를 자초하기도 했다.

중고생을 대대적으로

불가사리가 등장, 자녀들 둔 부모를 긴장시키기도 했다.

전날밤과 비교로 부재

시청자의 삶을 넉넉하게 가꿔줄 교양 프로그램이 연예 오락 프로에 밀리면서 심각하게 부각되는 문제는 방송사 내의 흥대. 시청률이 낮다는 이유로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로 방송시간이 밀리고 심할 경우 「추방」된다. 유아프로인 MBC 「뽀빠이」와 우리 시대 다양한 삶을 조망했던 MBC 「인간시대」가 대표적 사례. KBS 1TV도 독서프로 「이 한권의 책」을 없앴다가 뒤늦게 이를 해가 「책의 해」임을 깨닫고 「TV 독서, 책과의 만남」을 부랴부랴 회생시키는 해프닝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TV3사의 개편에서 주부 대상 프로는 양적으로 크게 늘었지만 한결같이 미용 패션 요리를 「소비관」으로서의 주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적을 받고 있다.

청소녀 모방심리 자극 SBS 「새내기 출중!」에서는 진행자 신승엽이 입이 작다고 우기는가

프린트소환된 연예인들로부터 폭력 장면이 두드러지고 있다. 「사건」 특전사와 관련

KBS 1TV 「한국의 미」 「국악 추수」를 제외하면 전통문화 프로그램이 없는 현실도 결국 시청률 저하주의의 산물인 셈이다.